

# NAKED URB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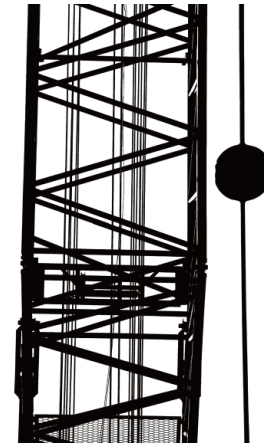
네이든 하저는 최근 뉴욕 미술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서른여섯 살의 사진작가다. 명료한 사진만큼이나 깔끔한 직관의 소유자인 그를 직접 만났다.

글 양민정 (피쳐 어시스턴트 에디터)  
 포토그래퍼 신규식

In the spotlight is thirty-six year old photographer Nathan Harger, who is receiving much attention as the latest addition from the New York art world. We had a chance to sit down with the artist behind the very distinct images featuring clean and sophisticated intuition.

Min-Jong Yang, Writer / Feature Assistant Editor  
 Kyu-Shik Shin, Photographer

제조업으로 유명한 미국 북동부의 클리브랜드에서 태어나 대도시 뉴욕에서 활동 중인 네이든 하저는 산업 현장과 공터의 탁한 모노톤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영락없는 도시 남자다. 그가 뷰파인더로 담아낸 도시의 얼굴은 마치 곡선과 질감을 그대로 드러낸 누드 사진 같다. 거리적거리는 배경은 흰 여백으로 날려버리고, 조형적인 윤곽만 짙은 흑색으로 남겨 묵직하게 눌러 찍은 도시의 누드. 도면이나 그래프로 보일 법한 흑백사진을 찍는 이 젊은 작가는 뉴욕의 한 유명 갤러리의 눈에 띄는 것을 계기로 2009년 첫 전시를 열었고, 그 후부터 어빙, 워커 에번스 등 현대 사진의 대가들의 뒤를 쫓는 중이다. 미국의 사진 잡지 <PDN>에서 선정한 '주목할 만한 신진 작가 30'에 이름을 올린 그는 현재 온갖 우수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고 있다. 애초에 도시와는 인연이 없는 '자연'스러운 색채와 농담(濃淡)에 대한 미련을 과감하게 처낸 네이든 하저의 사진은 따뜻함도 차가움도, 다정함도 비정함도 없이 순수한 명암과 선형의 절제된 아름다움만으로 보는 이를 감동시킨다. 그의 카메라 앞에서 옷을 벗은 도시는 여백의 미를 한껏 활용한 동양의 묵화처럼, 또는 고장난 복사기로 인쇄한 엑스레이 사진처럼 뼈대와 살을 또렷이 드러내고 있다.



Nathan Harger was born in the midwestern region of the United States, in Cleveland, Ohio, then moved to New York City. Harger's use of monotone creates a sense of peace of mind, and his depiction of industrial sites and vacant lots are done without ruining the cityscape. He is a true city man. Capturing the city through a viewfinder, the city's depiction is like a nude image, as Harger exposes the raw curves and textures of the subject. The white background portraying negative space complicates depth perception, making it seem infinite. The black spaces mark the positive space, and formats the outlines and flattens the space. Harger's drawings look a lot like graphs, and the black and white photography is a signature of this young artist. Harger first caught eyes through his first exhibition in 2009 at a famous New York gallery, and since then has been following the footsteps of the masters of modern photography such as Irving Penn and Walker Evans. He was featured in American photography magazine, *PDN*, as one of the "30 New and Emerging Photographers to Watch" and is constantly winning awards in the industry's top art competitions, gaining recognition from all over the world. Nathan Harger's work was originally not about the city, and he often used natural colors to depict a playful image of the future. This has drastically changed, and his current work does not betray any emotion at all -- no warmth, no chill, no fondness, no distaste. There is only pure contrasting lines, and the visual impact lies solely in the graphic simplicity. The city sheds its clothes for his camera, and he points out the beauty of the margin, similar to Mukhwa ink painting. His images are like x-rays of the bones of the city.

## 네이든 하저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정립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나는 스스로를 사진작가라기보다는 추상예술가라고 생각해왔다. 세계의 산업화는 내게 중요한 화두다. 사람들은 공장 같은 도시의 시설이 가진 건축적인 미학을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미적 요소를 놓친다는 건 매우 아쉬운 일이다. 이런 작업을 시작한 아주 젊었을 때부터다. 드로잉부터 시작했고 사진을 좋아하면서 그걸 사진으로 표현하게 됐다.

## 클리브랜드는 제조업으로 유명한 곳이라 들었는데, 태어나고 자란 장소가 당신의 사진에 영향을 주었나?

물론이다. 영향을 받았다. 유년 시절, 가족과 나는 제조업에 관련된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자연 풍경보다는 도시의 요소들에 더욱 익숙하고 끌리는 것 같다.

## 기하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특별히 사용하는 당신만의 기법이 있나?

내 작업의 모토는 '절제'다. 실제로 내 사진은 모두 굉장히 절제된 분위기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미지를 조절하는 것이다. 어떨 땐 이미 내 머릿속에 그려둔 장면이 그대로 찍힌다. 준비 과정은 거창하지 않다. 강렬한 명암 대비의 흑백이 돋보인다. 그런데 같은 사진이라도 흑백으로 바꾸면 더 운치 있지 않나.

## 흑백사진 특유의 트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흑백사진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 외의 여러 정보들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품 중에는 컬러 사진도 있지만, 오로지 푸른색, 회색, 검은색만 나타난다. 흑백만큼이나 단순하고 제한된 색감이다.

## 색깔의 '가지치기' 인가? 흑백에서도 회색 톤의 비중이 매우 적다.

맞는 말이다. 나는 주로 적은 양의 회색 톤만 사진에 넣는데, 현실성과 추상성을 대비시키면서 그 경계에 있는 어떤 중간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약간의 리얼리티를 위한 회색 톤이랄까.

## 그래서인지 당신 작품은 사진보다는 그림이나 일러스트 같은 느낌을 준다. 리터치도 꽤 할 것 같은데.

주로 포토샵을 이용한다. 그러나 웬만하면 카메라 안에서 최대의 결과물을 내려고 한다. 그래야 사진을 현상하고 난 후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촬영을 하는 긴박한 순간에 완벽한 세팅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터치를 할 수밖에 없다.

## 개인적으로 리터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종적인 작품으로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에게서는 그런 중간 과정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종 결과물이 가장 중요하다. 이전 세대의 작가들은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도구 없이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작은 공간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다.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방법들은 편법이 아닌, 현재의 기술이 주는 선물이다. 예술의 작업 방식은 기술이 발전하는 양상과 함께 변화하는 게 맞는 것 같다.

## When did you develop your distinct signature style?

I gradually started thinking more like an abstract artist rather than a photographer.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world is a very important subject in my work. People live in cities filled with amazing architectural aesthetics, but they often overlook these things. It is very unfortunate that these wonderful aesthetics are lost from our sight. I started focusing on this subject when I was very young, and the style first developed in my drawings. As I gained more interest in photography, the signature style started showing in my photographs as well.

## I heard that Cleveland is famous for its manufacturing industry. Did growing up in that area affect your work?

Of course. It definitely had an impact. During my childhood, my family and I were surrounded by manufacturing companies. This might be the reason why I am more attracted to the elements of cityscapes than natural landscapes.

## Is there a special technique you use to create your signature geometric feel in your images?

In regards to my work, my motto is "abstinence". My work has a very restrained vibe, which is a result of my adjusting the image until it looks just right. Sometimes I have an image in my head, and the camera photographs it just the way I want it to. In those cases, there is not much preparation. I like to emphasize the heavy contrast between black and white. I feel that an image has a better flavor in monochrome.

## What do you think of black and white photography's tendency to trick the viewer in a distinct way?

To me, the attractive quality of black and white photography is that I am able to focus on what I want to highlight, and delete elements of the image that I want to eliminate. I do feature color in some of my work, but the colors are limited to blues, grays, and black. I like the simplicity of black and white.

## Is your work a "cutback" of color? It is even difficult to find gray tones in your work.

This is true. I mainly use gray tones very rarely in my work. I limit the use of tonal representation to skirt the boundary between reality and abstraction. You could say that the gray tones push a higher sense of reality.

## Perhaps this is why your work looks more like illustrations than photographs. It looks like you do a lot of digital retouching.

I mainly use photoshop to retouch my images. I try to maximize the quality of the original shot that I take with my camera. In this way, working time for editing and retouching can be shortened. The conditions can sometimes prove difficult to take the perfect shot, so it is inevitable that I end up retouching my images.

## I don't think retouching is necessarily a bad thing. I think the final product and the result of the image is the most important.

I totally agree. The mid-process results don't trouble me. The final product is what's most important. The technology today has enabled me to envision so many possibilities with my work. I can create the image I want through various tools, and that's a blessing. Artistic methods change as technology advances.

**아티스트에게는 언제나 딜레마와 같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자기만의 시그너처 스타일을 고수할 것인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로 이미지 변신을 할 것인지.**

내 스타일은 앞으로도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내 시선이자 표현 방식이다. 다만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것을 다양한 형태의 장르에 접목할 생각은 있다. 비디오나 좀 더 유기적인 매체로 작업해볼 예정이다.

**주로 등장하는 배경인 기업이나 공장, 산업 현장 등은 보통 외부인의 접근을 받기 어렵다. 섭외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다. 앞에서 말했듯 가장 쉬운 건 현장에서 카메라로 최대한 세팅을 해내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작업 환경은 결코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다. 보통은 내쫓기듯 빠르게 찍고 나오기 때문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설정하고 느긋하게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대충 찍고 나서 후보정 작업을 거치는 것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곳에서 허가를 얻기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난 거의 훔치듯 사진을 찍고 나온다. (웃음)

**몰래 찍다가 경비에게 쫓겨나가거나 경찰에게 잡힌 적도 있나?**

매번, 반드시. (웃음) 누군가 날 제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기분이 들 정도다. 그런 마찰을 자주 빚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익숙해진 셈이다. 지역 파출소는 꼭 한 번씩 들르는 것 같다. 하지만 나중에 내 작업을 보여주면 거의 모든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은 촬영하러 갈 때 미리 포트폴리오나 나에 관한 기사를 차에 잔뜩 싣고 간다. 어쨌든 찍고 싶은 건 반드시 찍어야 직성이 풀리니까.

**작업 과정에서 경험한 흥미로운 일화를 들려달라.**

<공장 벽 사진>(Untitled (Aluminum Siding), Staten Island, NY 2010)은 신기한 우연으로 찍게 됐다. 나는 이미 저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다. 어느 날 백일몽에 빠져서(자주 그러는 편이다)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이 사진 속의 건물과 맞닥뜨렸다. 내가 상상했던 장면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상상한 것을 실제로 발견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면 내가 그리는 이미지가 나를 찾아온다는 생각도 든다.

**반대로 고생 많이 한 작품은?**

<비행기 사진>(Untitled (Holding Patterns), Brooklyn, NY 2008). 찍고 싶은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놨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나오지 않았다. 비디오로 찍어보고, 흑백사진으로도 찍어보고, 여러 방법을 총동원했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게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는데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 상당히 애를 썼다.

**도시와 패턴, 반복을 좋아하는 당신에게 한국도 꽤 흥미로운 피사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맞다. 내가 한국에 온 건 바로 그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 방문한 게 처음이다. 인터넷이나 영화에서 본 이미지 말고 내 눈으로 직접 이곳을 경험해보고 싶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인데 많은 영감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무엇을 보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척 기대된다.

**As an artist, you must always have dilemmas and thoughts about the direction of your work. Have you thought about trying a new style and leaving your signature style behind?**

My style will never change. This is how my eyes represent the world. I do however have thoughts of trying new genres in the future. I'd like to try videography, or a more organic medium.

**The view points that you shoot from seem like difficult positions to access, and the settings appear to be unavailable to the public. It must have been difficult to gain access to your vantage points.**

This is very true. As I mentioned earlier, one of the biggest difficulties in the working process is to find the perfect setting. Sometimes, the view point that I choose doesn't work out the way I want it to. I usually take photographs very quickly, and I don't have time to set up my camera on a tripod and take photographs at a leisurely pace. I take however many photographs as I can, and work on the image afterwards. It's always been very difficult to get permission to enter those types of places. I take the shot and leave so quickly... Almost like a crook.

**Have you ever been chased by security, or even arrested?**

Almost every time. It feels strange when no one tries to chase me out. I got used to the opposition, and as a result the resistance feels more familiar to me. I think the local police got involved almost every single time I tried to break in to a property for a photograph. They're usually much more understanding after I explain to them that I'm a photographer, and show them some of my work. Lately, I make sure to pack my portfolio and press articles in my car to explain what I'm doing. Even though it's a lot of trouble to go through, it is worth it because I am determined to take the photographs that I want to take.

**Tell us an interesting story about your work experience.**

The story behind the work *Untitled (Aluminum Siding), Staten Island, NY 2010*, is an interesting one. I ended up taking that photograph by destiny. One day, while I was behind the wheel, I drove the wrong direction and I ended up in front of this building. I've found locations by wandering a few times, and when this happens I really feel like the image was looking for me.

**And an example of a very difficult image?**

*Untitled (Holding Patterns), Brooklyn, NY 2008*. I had an image in my head that I wanted to capture, but the photograph itself didn't turn out the way I had imagined it. I tried taking a video of it, taking the photograph in black and white, I tried a variety of different methods and it wasn't quite right. I was so hung up on this image, and I kept thinking to myself, "I need to take this photograph just right!" I wanted so badly to represent my vision through the photograph, and I spent a lot of time stressed out about it.

**Since you like repetitive patterns of the city, do you think Korea is an interesting subject matter?**

Yes. That is precisely why I came to Korea. Korea is the first country I visited in Asia. I've always wanted to see the cityscape in person, and not just on the internet and TV. I have about a week left of my trip, and I think I can get a lot of inspiration during my stay. I'm very excited at what I'll see, and what will happen.